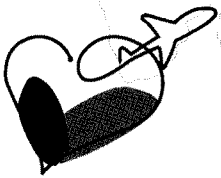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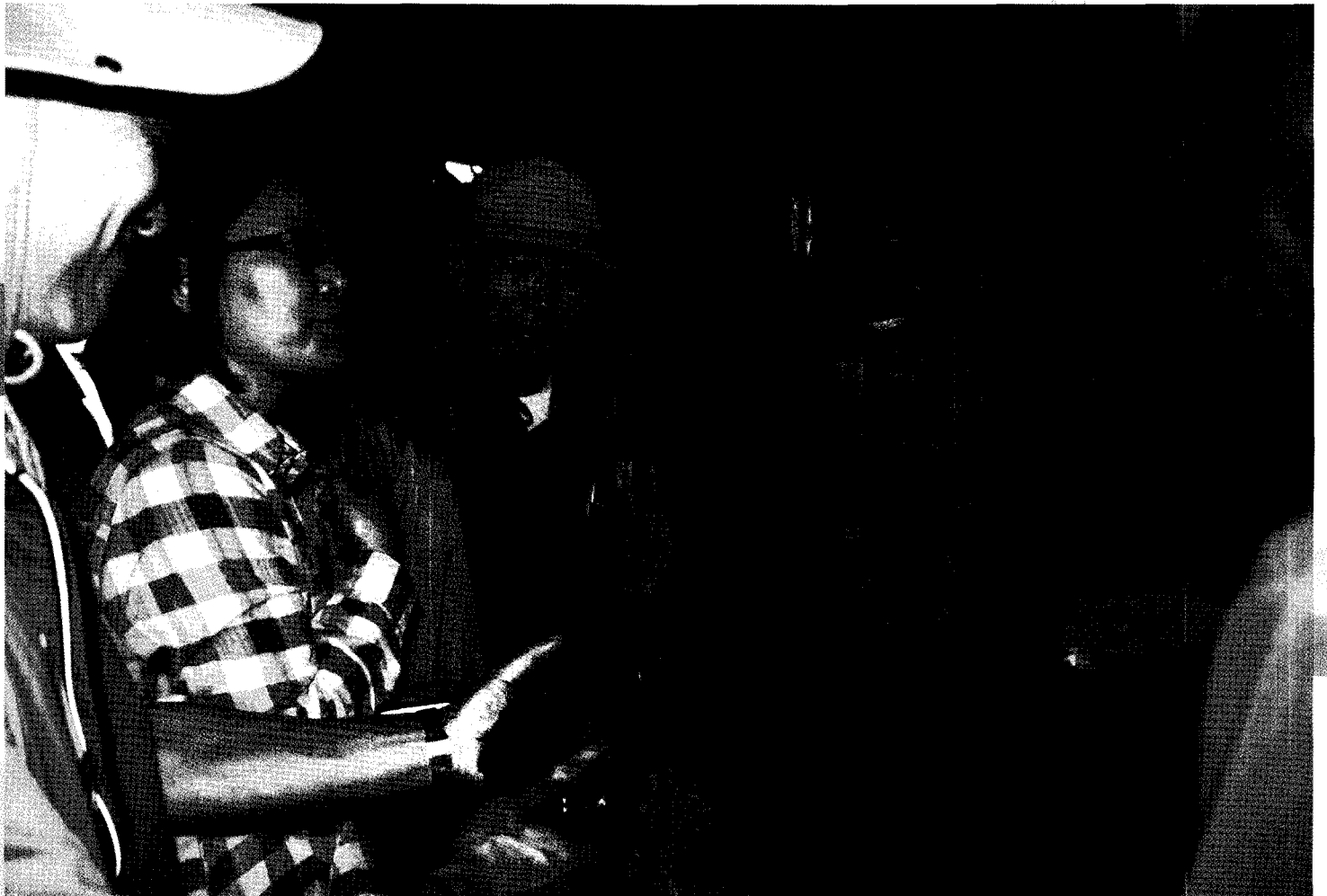
주혈흡충퇴치를 위해 수단에 가다

sudan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한익 회장과 서울의대 홍성태 교수, 충남의대 이영하 교수 등 전문가와 남편의 고향이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코스티인 연합뉴스의 박인숙 기자가 함께 지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단 화이트나일주(州)에서 식수공급 정수시설 완공식을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비롯한 주혈흡충 중증감염 마을과 학교를 방문 해 실태조사와 치료, 재감염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등을 실시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국제선 출국 항공권에 천원의 기여금이 부과되는 제도로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는 49개국 중 33개국(약 70%)이 집중된 지역인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 명이 넘는 산모가 목숨을 잃고, 어린이 7명 중 1명은 5세 이전에 사망하며, 매년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빈곤과 질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주혈흡충으로 가득 찬 수단 백나일강

주혈흡충은 강과 수로의 오염된 물을 먹거나 물놀이, 목욕, 빨래 등을 하는 동안 기생충 유충이 피부를 뚫고 혈관에 기생하다가 방광과 간에 손상을 초래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매우 무서운 기생충질환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9년 8월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 네 번의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화이트나일주(州) 라박에 개설한 KOICA 기생충검사실에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공우현 과장을 프로그램 관리자로 1년간 파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화이트나일주(州) 지역은 백나일(White Nile)강이 흐르는 지역이라 물로 인한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 지역인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 풍부한 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강에 사는 우렁이 내에 있는 중간숙주가 물속을 유영하다 인체 표피를 통해 감염돼 주혈흡충에 노출되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오염된 강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식수로 사용하기에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백나일(White Nile)강 인근 지역은 주혈흡충 감염률이 매우 높아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에게 심각한 건강 위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단 국민의 80% 정도가 주혈흡충에 노출되어 있고, 이중 약 20%인 800만 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어, 수단에서는 매우 중요한 건강 증진사업 중의 하나다.

더운 날씨로 오염된 물에 뛰어들 수밖에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위해 전문가 팀과 동행한 연합뉴스 박인숙 기자는 “오래전 남편을 통해서 강물이나 도랑에 사는 유충이 사람의 몸을 뚫고 몸속에서 살아 돌아다니다 장기에 박혀, 혈뇨를 누게 하는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주혈흡충은 수단 현지에서 잘 알려진 질환이다. 그러나 건기에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오염된 강물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고 식수공급 정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지에서는 당나귀에 물통을 싣고 다니면서 물을 나르거나 파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MEDI^YCHECK** 건강소식 3월호에서 KAHP 해외 속로②가 이어집니다.